



보도시점 2024. 7. 4.(목) 배포시 배포 2024. 7. 4.(목)

맹견 사육허가제도의 원활한 시행 추진

- 일부 지자체는 7월부터 기질평가를 실시하고, 나머지 시도에서도 9월 내 기질평가를 실시함으로써 맹견에 대한 사육허가는 차질없이 진행될 예정

<보도 주요 내용>

7월 4일(금)자 한국일보 「맹견 키우려면 허가받으라더니...실행 준비조차 안 됐다」 기사에서 “맹견사육허가제와 기질평가제가 시행된지 2개월이나 지났지만, ① 기질평가위원 구성이 안됐으며, ② 평가일정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설명>

현재 시·도별로 맹견 사육허가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해 기질평가위원 위촉, 평가시설 확보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질평가위원은 6월 30일 기준으로 6개 시·도(서울,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는 위촉이 완료되었고, 나머지 11개 시·도는 7월까지 위촉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질평가 시행 일정은 전북, 충남 등 4개 시·도에서는 7월에 실시할 예정이고, 나머지 13개 시·도에서도 8~9월에는 기질평가를 시작할 예정으로 맹견 사육허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대상 제도 설명회, 기질평가위원 실무 워크숍 실시, 맹견 사육허가제 홍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시·도별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맹견 사육허가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611)
	동물복지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이상록 (044-201-2626)